NH투자증권

한국 4분기 GDP
: 수출은 웃고 소비는 울고

FX/경제 | 2021. 1. 26

FX/경제 권아민 02)768-7505, ahminkwon@nhqv.com

- 한국, 2020년 4분기에는 순수출 주도로 전기 대비 1.1% 성장. 2020년 연간으로는 IMF 이후 최저

1) 우리나라 4분기 GDP 증가율은 전기 대비 +1.1%, 전년 동기 대비 -1.4%를 기록

2) 2020년 연간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1.0% 감소해 1998년 이후 최저치 기록

3) 4분기 민간 기여도는 0.7%p, 정부 기여도는 0.4%p로 1년 만에 민간, 정부 공히 플러스 기여도 기록. 민간 부문에서는 순수출(2.1%p)이 최종소비지출(-0.9%p)의 마이너스 기여도를 상쇄. 투자 기여도는 0.5%p를 기록했는데, 설비투자(-0.2%p) 부진에도 건설투자(0.9%p) 기여도가 3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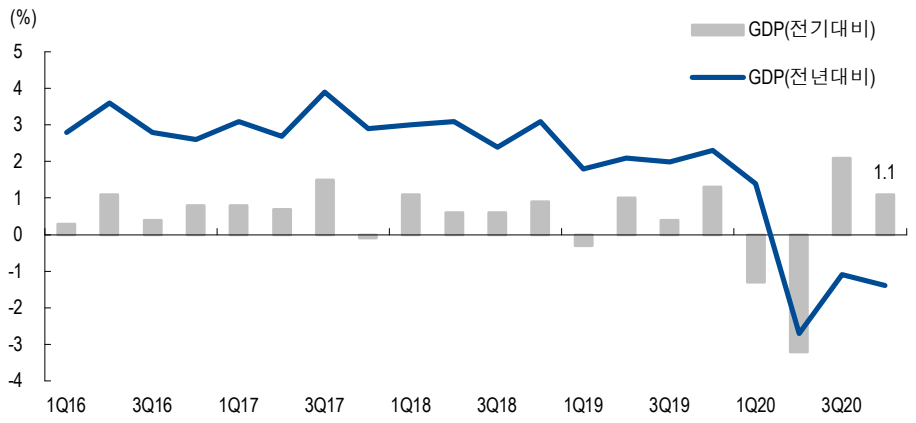
- 글로벌 경기 개선, 코로나 우려 완화에 점진적 개선 흐름 이어질 전망

1) 코로나 백신 접종, 미국의 추가 부양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글로벌 경기 회복세는 지속될 전망. 우리나라 주력 수출국의 제조업 PMI 역시 확장 국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순수출이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

2) 4분기 업종별 성장률도 제조업(2.8%q-q)은 개선. 다만 도소매 숙박음식(-0.3%)/운수업(-2.3%)이 급감하며 전체 서비스업 성장을 제약(0.4%).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현행 2.5단계의 거리두기가 1월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1분기 민간소비의 개선 흐름은 더디게 이어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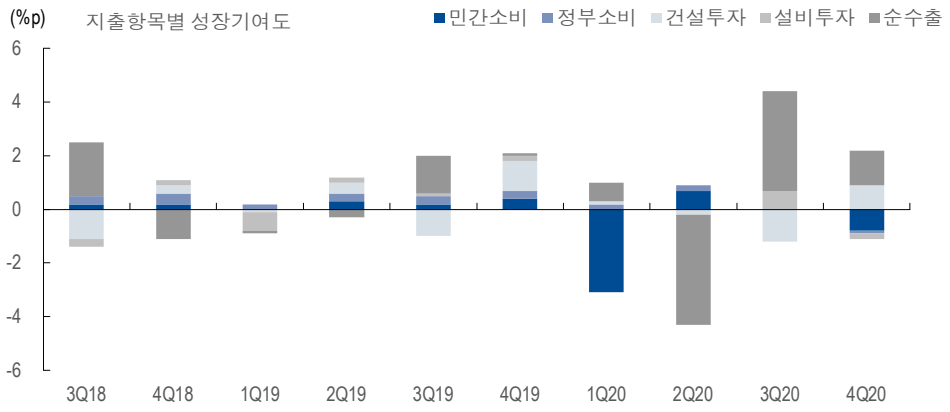
3) 종합하면 분기별로는 전기 대비 완만한 개선 흐름 이어질 것으로 판단(그림4 참조). 올해 국내 연간 성장률은 2.7%로 전망

그림1. 한국 2020년 4분기 GDP는 전기 대비 1.1% 증가



자료: OECD,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지출항목별 기여도: 3분기에 이어 순수출 기여도가 GDP 성장 주도, 건설투자 플러스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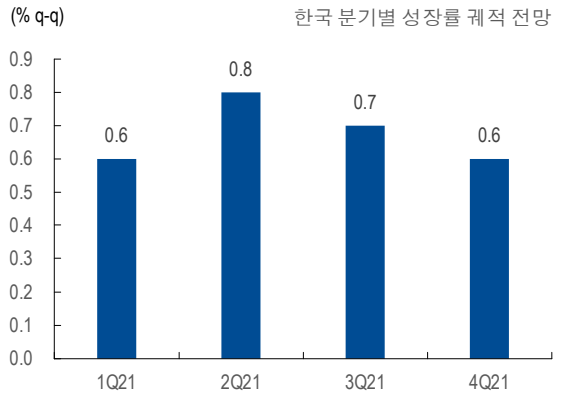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 국내 수출 증가율 개선 지속, 물량 증가율 소폭 둔화

자료: CEIC,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 올해 분기별 성장률 경로 전망



자료: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고지 사항**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의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분석한 결과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위해 작성된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지적 재산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